

개는 육식동물이다.

Dr. Jeanette (jeannie) Thomason

나는 오늘날 이 말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를 사람과 같이 취급하고 나 역시 내 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자식들처럼 여기지만 개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사람처럼 먹지 않습니다. 신은 개를 육식동물로 창조하여 자연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개가 잡식성이라는 가정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개가 타고난 육식동물이라는 사실은 충분한 증거들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입 속부터 살펴봅시다. 개도 사람처럼 이빨을 갑니다. 생후 3주에서 6주 사이에 28개의 유치가 나고 생후 약 4개월이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로 대체됩니다. 견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생후 6~7개월에 전구치(앞어금니)가 맨 마지막으로 나와서 모두 42개의 이빨을 가집니다.

개의 입속을 보면 크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데 이것들은 고기를 물고 찢고 절단하고 뜯도록 되어 있습니다. (Feldhamer, G.A 1999. 포유동물학: 적응, 차이와 생태, 맥그로힐 258쪽). 개는 식물을 가는 크고 편평한 어금니가 없습니다. 개의 어금니는 뽀족하고 다른 이빨들과 같이 윗니와 아랫니가 가위처럼 맞물리게 나 있으므로 (시저스 바이트) 고기와 뼈, 가죽을 강력하게 처리합니다. 개는 독특한 절단치아 세트가 있는데 위턱의 4번째 앞어금니(PM4)와 아래턱 1번 어금니(M1)입니다. 그러므로 개는 씹지 않고 물고 찢고 절단하고 삼킵니다.

견치(송곳니)는 물어서 잡고 구멍을 내고, 절치(앞니)는 갇아먹고 전구치(앞어금니)는 찢고 구치(어금니)는 뼈를 부수습니다.(씹는 것이 아님). 우리의 귀여운 애완견이 야생의 친척보다 모습은 훨씬 문명화되어 보이지만 먹고 방어하는 도구는 야생의 친척과 같은 것입니다.

개의 입 안쪽에는 위턱과 아래턱의 양쪽으로 각각 4개씩(합계 16개)의 전구치가 있는데, 먹이의 살코기를 큰 덩어리로 찢는 가위 같은 이빨입니다. 비록 우리 애완견은 먹이 사냥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전구치로 뼈에서 고기를 찢어내는 늑대의 식사와 같은 방법으로 먹습니다.

위턱에는 양쪽으로 2개씩, 아래턱에는 3개씩의 구치(어금니)가 있는데 이것들은 늑대가 그렇듯이 뼈들을 부수는 이빨입니다. 턱은 넓게 벌려져서 큰 고기덩어리와 뼈를 삼킬 수 있습니다. 개의 두개골과 턱의 구조는 깊고 C모양의 대악구이므로 턱이 측면으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은 풀을 먹을 때 필요합니다.)

개는 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삼킵니다. 야생에서는 먹이가 귀하므로 육식동물은 빠르게 배를 채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내 개는 하루에 두 번 씹 밥 주는 것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개의 본능은 바뀌지 않습니다. 생식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가 고기와 뼈를 통째로 삼키는 것에 놀랍니다. 개는 정말 그렇게 하는데, 뼈에서 고기를 덩어리로 찢어내고 작은 뼈는 한 두번 부셔서 삼킵니다. 개의 위산은 사람보다 훨씬 강해서 큰 덩어리의 고기나 웬만한 크기의 생 뼈는 소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개의 몸을 바꾸었는지(그래서 여러 가지 크기와 성질로 만들었지만) 육식동물인 개의 내부 구조와 생리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개는 육식동물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를 가지고 있다.” (Feldhamer, G.A.1999.포유동물학: 적응, 차이와 생태, 맥그로힐 260쪽). 개는 매우 탄력적인 위를 가져서 많은 양의 고기, 뼈, 내장과 가죽을 삼킬 수 있습니다. 위는 단순하고 맹장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동 자료 260쪽). 개는 비교적 짧은 식도와 짧고 유연한 대장을 가져서 음식물이 빨리 통과합니다. 야채와 식물류를 소화하려면 장기가 길어야 하는데 개는 육식동물이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류가 분해되고 소화될 시간이 없이 그냥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야채와 곡물은 사전 가공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야채와 곡물을 육식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행위입니다.

“개는 일반적으로 침 속에 탄수화물과 전분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효소(예를 들자면 아밀라제)가 없다. 잡식성이나 초식동물은 타액에 아밀라제가 있지만 육식동물에는 없다. 그 때문에 식물속의 녹말, 섬유소, 탄수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다량의 아밀라제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주게 된다. 육식동물의 췌장은 섬유소를 포도당 분자로 분해하는 셀룰라아제를 분비하지 않는다. 개는 식물류를 효과적으로 소화하고 흡수하여 고품질의 단백질원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개와 고양이의 영양 케이스, Carey와 Hirakawa 공저, Mosby출간 1995)

따라서 개에게 사람(잡식성)처럼 먹이는 것은 개가 일반적인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정상적인 양의 효소를 몸속에서 만드는 것과는 달리, 전분과 탄수화물을 소화하려고 다량의 효소가 필요하므로 췌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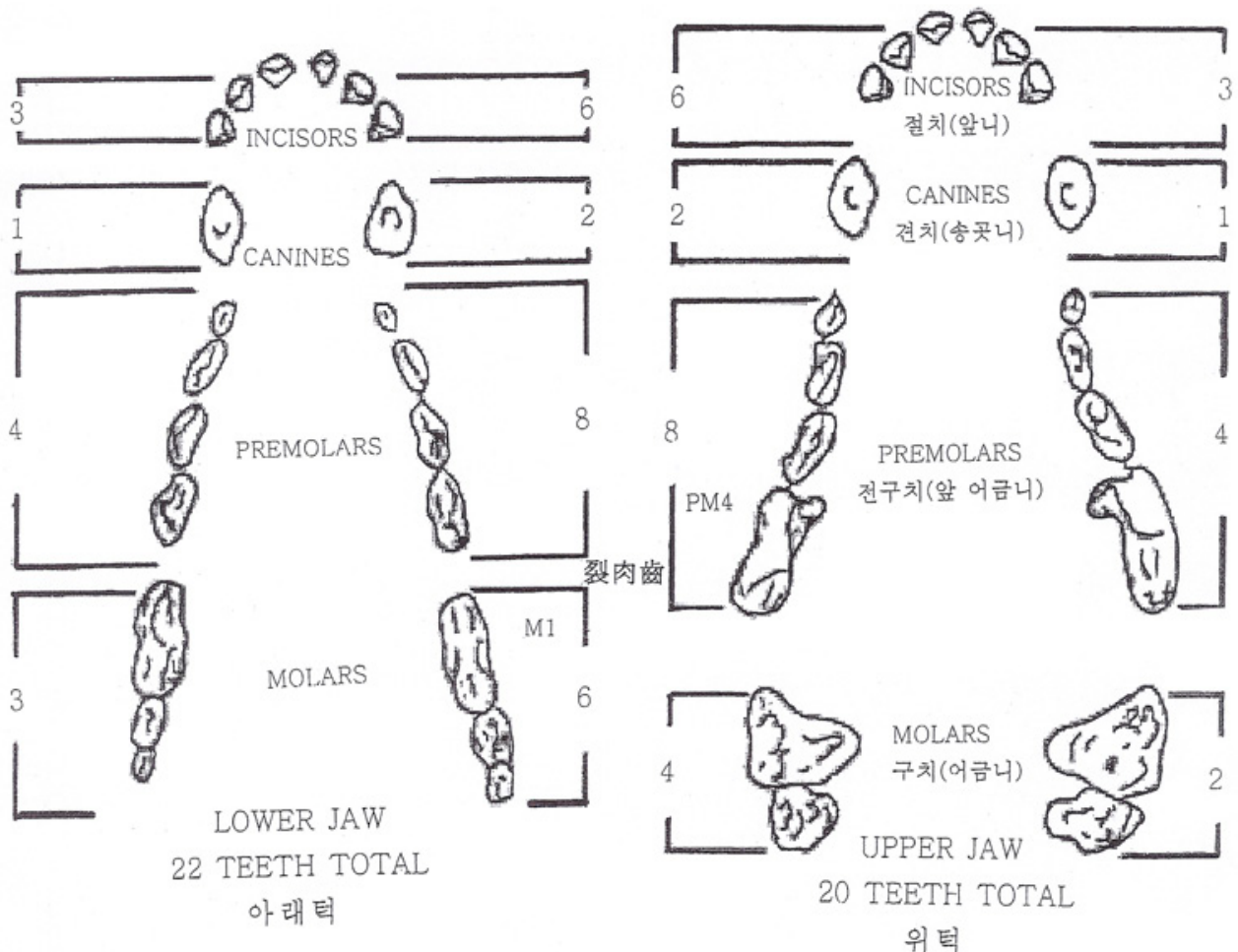
개는 섬유소와 전분을 분해하는 좋은 박테리아가 없으므로 식물류를 사전 가공을 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개 사료 제조회사들은 개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사료에 첨가해야 한다. (열을 가해 사료를 제조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파괴하므로 보충이 더 필요한 사실을 제외하고도)

개에게 곡물류의 음식을 급여하면 결과적으로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고 생고기 뼈를 완전히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효소도 적어진다. (Lonsdale, T. 2001 생고기 뼈).

개는 생리적으로 늑대와 매우 닮았으므로 늑대의 생리 연구에 개들이 이용된다. (Mech, L.D.2003 늑대: 행동, 생태와 보존). 개와 늑대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99.8%가 같다. (Robert K. Wayne, Ph.D 개 가족의 분자적 진화. Wayne 박사의 개 유전자 연구 www.fiu.edu/~milesk/Genetics.html 에서 발췌).

“가정의 개가 늑대와 매우 가까운 친척이고 DNA가 최대 0.2% 밖에 차이가 없다. “ 개는 모든 과학적인 기준과 진화의 역사로 볼 때 사육화된 늑대이다. (Feldhamer, G.A.1999 포유동물학: 적응, 차이와 생태. 맥그로힐 472쪽)

“개의 내부 생리기능이 늑대와 같고 생리적, 영양적으로 필요한 것이 동일하므로 몸이 성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늑대처럼 먹이가 되는 초식동물의 대부분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Mech, L.D. 203 늑대: 행동, 생태와 보존)



TEETH OF THE ADULT DOG